

「전라북도」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부업 양돈지도

전 문 위 원 이 주 목 <전북대농대교수>

새마을지도자 민 영 식 <익산군오산면신기리광지마을>

1. 마을개황

광지마을은 행정적으로 전북 익산군 오산면 신기리에 속하며 이리시 서남방 약 10 km 지점인 호남평야의 논 한가운데에 위치하며 총가구수 41 호, 인구 228 명이 사는 마을이다. 이 마을은 도시 근교에 위치하면서도 주민의 학력 수준이 비교적 낮

은 편이고 1976 년 호당 평균소득은 912,000 원으로서 전국 호당평균소득 1,156,000 원에도 못미치는 형편이었다.

이 마을이 본 새마을기술봉사단과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1977 년 3월 19 일이며 그 당시 광지마을의 실태는 다음 표들에 표시된 바와 같았다.

표1. 마을의 가구수와 농경지

년 도	가 구 수			인 구 수			농 경 지		
	농 가	비농가	계	남	여	계	논	밭	계
1976	31	8	39	118	120	238	37.8 ha	-	37.8 ha

표2. 주민의 학력분포

년 도	무 학	아 동	국 출	중 출	고 출	대 출	계
1976	24	126	51	20	15	2	238

표3. 호당 평균소득 비교

년 도	전 국	광 지 마 을
1976	1,156 천원	91.2 천원

2. 기술지도 방법 및 사례

1977년 3월 19일 전라북도 새마을기술봉사단 전문위원의 일원으로 이 마을과 기술결연을 맺은 직후에 광지마을 개황과 마을 지도자들의 열의 및 주민들의 의욕등을 우선 조사하였다. 이 마을의 새마을기술봉사단에 대한 관심은 얼마간의 물질적 지원에 그칠 뿐이며 마을 전체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못하리라는 생각에서 새마을지도자나 주민들도 매우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상태이었다.

그러나, 새마을기술봉사단으로서는 그 조그마한 물질적인 지원 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니 주민들의 실망이 어땠으리라는 것은 가히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 부락은 1976년에 양돈마을로 지정되어 1977년에 100두분의 자본 구입자금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배정받았으나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양돈에 경험이 부족하며 일부 부락민은 양돈에 공포에 가까운 기우에 젖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외에 주민들도 대부분이 양돈에 거의 관심이 없는 상태이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기술지도는 물론이려니와 양돈마을 육성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이었다. 그러므로 다각적인 검토 끝에 제1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가. 양돈사업의 성공과 주민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능하고 열의가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며 이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나. 양돈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모범적 양돈농가의 시범이 필요하며 이 모범농가로 하여금 양돈기술을 익혀서 마을 사람들에게 산지식을 넣어 줄 수 있으며 행동으로 양돈의 실예를 보여 주어야 한다.

다. 이들 몇명의 시범 양돈가의 희생적인 양돈기술 습득기간에는 이들에게 집중적인 기술지도를 하는 한편 나머지의 주민들은 안정된 부업을 가지도록 하여 계속 소득증대에 전념하면서 시범 양돈가들의 양돈기술을 주의깊게 관찰함으로써 양돈에 관하여 관심을 갖도록 하여 그 기술을 습득토록 하며 자신을 가지게 된 다음 점차로 양돈사업에 접근토록 유도한다.

이와 같은 계획 수립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이를 실천에 옮겼다.

가. 마을 일을 위하여 열성적이며 희생적으로 일하는 이 마을의 이장인 민영식씨로 하여금 새마을지도자직을 겸직토록 간청하여 이를 실천하였다.

나. 시범 양돈가는 새마을지도자와의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두분을 선정하였다.

다. 양돈기술 습득기간의 농가소득을 위하여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율이 적으며 재료확보가 용이한 가마니짜기를 장려하였다.

3. 효과 및 실적

가. 유능한 새마을지도자의 발견

당시 이장인 민영식씨는 대학을 나온 후 공직생활을 하였으나 가정사정으로 귀향하여 여러 농업교육기관의 농업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영농기술과 지식을 손수 익힌 열성적이면서도 새롭고 참다운 일꾼이며 농촌지도자이다.

민영식씨는 자신의 미곡 수확증대는 물론이려니와 마을의 미곡 수확증대를 위하여서도 부락민을 일일이 논으로 데리고 가서 새농사법을 강제로 지도하다시피한 열성적인 지도자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광지마을의 수도작 수확량은 다음과 같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게 되었다.

표 4. 광지마을의 미곡증산 실태

(10a당)

년 도 별	1975	1976	1977	1978
미곡생산량	4 가마	5 가마	6.3 가마*	5 가마**

* 통일 재통벼 품종

** 1978년 통일계 벼 품종의 대병충해로 인한 감수

또한 시범적인 양돈을 직접 이끌어 나가면서 이를 손에 익히고 공부하여 현재는 일류 양돈가로서 마을의 양돈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그는 가마니틀의 고장 수리에도 앞장서서 고쳐주는 숙련공에 못지않는 기술자가 되었다.

나. 가마니 짜기에 따른 소득증대

이 마을은 평야부의 논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미곡생산 외에는 전혀 다른 소득원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 마을은 논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소득을 올리는 길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논을 이용한 소득사업을 여러모로 조사해 본결과 다음과 같은 사업이 가능하리라는 결과를 얻었다.

1) 이 마을은 중소도시인 이리시와 군산시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므로 미후작 또는 모내기 이전에 논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원예작물을 재배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2) 또는 이모작으로 사료작물을 논에 재배하고 논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볏짚을 이용하여 조사료를 확보하고 미곡 부산물로 생산되는 미강을 이용하여 소를 기를 수 있다.

3) 이 마을과 이웃 마을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볏짚을 가공하는 방법으로서 가마니짜기를 할 수 있다.

상기한 세가지 방법은 이 마을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합리성 있는 사업으로 생각되기는 하나 원예작물 생산은 보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시장가격이 불안정하여 위험률이 높으며 사료작물 재배에 따른 소의 입식은 소의 구입비가 고가일 뿐만 아니라 사육기술과 가격파동등 문제점이 다소 뒤따르므로 역시 안전도가 다소 낮은 편이다.

그러나 가마니짜기는 특히 겨울철의 농한기에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동원할 수 있으며 자가생산된 볏짚 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등에서 얼마든지 볏짚을 구입할 수 있는등 이점이 많으며 생산비가 보장되고 전 생산량을 매각할 수 있는 가장 안정성이 높은 부업이라는 결론이 내려져서 이 사업을 적극 장려하였다. 가마니틀 대수는 41대에 이르며 1978년의 가마니 매각에 따른 수입은 4,715,000원이었다.

다. 양돈마을의 육성지도

양돈마을로의 육성을 위하여 전기한 바와 같이 3개 농가를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적으

로 양돈을 경영토록 하여 점차적으로 자돈을 분양 양돈사업을 이끌어 나갔다.

1) 번식돈의 확보

시장에서 구입한 자돈은 그 품종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약하고 폐사율이 높아 경험이 없는 농가는 자칫하면 실패하게 되므로 양돈에 선풍 손을 대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므로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믿을만한 자돈을 확보하는 길이었다. 그러므로 세 시범농가로 하여금 번식용 번돈을 각각 3두씩 구입하여 1977년 가을부터 자돈생산을 시작하였다.

2) 양돈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기술지도

① 자돈 구입은 시장구입을 지양하고 가급적 시범농가에서 구입한다.

② 시범농가에서는 번식돈을 위주로 경영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반드시 55 일령 이상에서 이유한다.

(나) 성장율이 가장 나쁜 자돈은 도태하거나 본인이 사육하며 절대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는다.

(다) 판매후에는 가급적 사양관리와 질병에 관한 지도를 하도록 한다.

(라) 번식돈과 판매자돈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방역대책을 실시한다.

① 1년미만의 번식돈에는 연 2회의 돈콜레라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1년 이상의 번식돈에는 연 1회의 예방주사를 반드시 실시한다.

② 판매자돈은 판매 일주일전에 반드시 내부기생충을 구제한다.

③ 판매자돈은 판매 일주일전에 돈콜레라 예방주사를 실시한다.

④ 구매자의 원에 의하여 돈 단독 예방주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구매자에 잘 설명하여 가급적 돈단독 예방주사를 하도록 권장했다)

⑤ 구매자가 번식돈으로 키우기를 원하면 6개월 후에 돈콜레라 예방주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설득시킨다.

4. 문제점과 전망

이 마을은 부업 형태의 양돈으로 1977년에는 전국 농가평균소득 수준에 이르렀으며 부업 형태

의 양돈에서 다두 사육화하려는 시기인 최근에 가축가격의 하락으로 커다란 피해와 실망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마을의 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축의 가격이 안정되어야 하겠다. 가축의 가격이 보장된다면 이 마을은 그간

에 살린 양돈 경험과 열성적인 새마을지도자와의 주민이 협심하여 80년대에는 선진마을의 대열에 나란히 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그러므로 가축의 가격이 보장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요망된다.

표 5. 번식돈의 확보와 자돈생산

(단위: 두)

년 도	번 식 돈	번식후보돈	분만되자돈	시장구입자돈	총 계
1977년 봄	10	3	0	3	16
가을	63	5	104	14	136
1978년 봄	17	10	187	16	230
가을	25	20	300	8	353
1979년 봄	40	3	480	2	525
현재	18	8	10	0	36

표 6. 돼지 판매에 의한 소득

년 도	자 돈 수			자 돈 판 매		비육돈 및 폐돈판매	
	생 산 분 + 시장구입	폐 사	잔 존	두 수	금 액	두 수	금 액
1977	118 두	9 두		104 두	5,200,000 원	5	408,500 원
1978	511 두	14 두		481 두	24,050,000 원	17	1,985,600 원

표 7. 농가 호당 평균소득

(단위:천원)

년 도	전국농가	광 지 마 을				기 타
		총 소 득	수 도 작	양 돈	가 마 니	
1976	1,156	912	852	10	30	20
1977	1,432	1,491	1,198	62	76	155
1978	1,980	1,986	1,152	479	115	240

마음마다 科學심고

손끝마다 技術심자